


영원을 향해가는 유목민
예담교회
SINCE 2008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설교요약

/결단과 헌신

목장모임, 주일학교

프리토리아	김장원 문현진	유창환 함은정 손은미
베를린	조혜정 김영관	정영 박애희 정경화
키르기스	이중혁 양새롬	정광 이윤경 전민교 양경모 안제호 김지인 이정후 정다운
퍼스	권영준 유나윤	다윗부
땅 끝까지	김현수 강아란	윤혜윤 박용수 문선희 조현선
발리	양순모 서은비	김은재 장해청 신상민
나짱	권오윤 김인지	김석원 이수민 김동규 김희진
우름치		양승구 김혜랑 이옥희 김중범 김연숙
주일학교	다윗	박소울 김지아 주송현 신지호 김재인 주송하
	믿음	김서울 박지웅 김성준 김수경 김태인 신유나 박지훈 정시우 정시연 박도겸 김서아 유지안 박지민 김수호 유니아
	소망	양희건 유시우 김은호 김해인 정이진 양하은 이강 김민호 김리아 이지윤

교회 주소

우)13503, 별말로 40번길 3 성산빌딩 4층
(옛주소 : 야탑3동 272-4 성산빌딩 4층)

교회 관련 링크



교회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오시는 길 (네이버지도)

모임 안내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2부	오전 11시	올리브탕
	소망부	오전 11시	본당
	믿음부	오전 11시	본당
	다윗부	오전 11시	본당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승관
사역위원 김장원 권영준
대표전화 / 070 - 4409 - 8291

협력 선교사/교회/단체

지역	협력 선교사/교회
프리토리아	김보근 선교사
베를린	박희명 선교사
키르기스	K 선교사
퍼스	변성모 목사
땅 끝까지	이강욱 선교사
나짱	K 선교사
발리	최문식 선교사
우름치	L 선교사

헌금안내

신한은행 100-025-549240
예금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예담교회

주일예배순서

- ★ 일어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서주세요 인도 : 김승관 목사
- 찬양 찬양팀
- 환영과 광고
- ★ 입례찬송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 ★ 사도신경 다같이
- 봉헌찬송 다같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통415)
- 공기도 1부: 양새롬 집사, 2부: 김장원 집사
- 간증 신유나, 김서아, 박도겸, 유지안
- 성경봉독 인도자 로마서 2장 17-29절
- 말씀선포 김승관 목사 율법에 담긴 사랑
- 성찬식
- ★ 찬양과 헌신 다같이 축복의 사람
- 강복선언 설교자

목장예배순서

- 애찬 다같이
- 올리브블레싱 다같이
- 찬양 인도 / 찬양부장
- 광고 목자 (지난 주보 목회칼럼을 읽어 주세요)
- 성경공부 인도 / 목장교사
- 나눔 다같이 (감사 나눔을 먼저 하세요)
- 중보기도 인도 / 목자
- 선교와 전도 인도 / 목자 (선교사님과 VIP 를 위해 기도하세요)

일정안내

수요기도모임	식사 준비	주요 교회행사
05.06 권영준	05.10 프리토리아.퍼스	05.10 주일학교 봄소풍 총목자 모임
05.13 유창환	05.17 땅 끝까지.키르기스	
예배당 청소	예배기도	
05.10 프리토리아.퍼스	05.10 이중혁 양순모	
05.17 땅 끝까지.키르기스	05.17 정광 유창환	

지난 주 현황

현금	감사의 제목																				
<table border="1"> <tr><td>십일조</td><td>1,913,000</td><td>작정현금</td><td>380,000</td></tr> <tr><td>주일현금</td><td>300,000</td><td>기타현금</td><td>200,000</td></tr> <tr><td>주일학교/다윗부헌금</td><td>17,000</td><td>선교현금</td><td>20,000</td></tr> <tr><td>감사현금</td><td>190,000</td><td>건축현금</td><td>20,000</td></tr> <tr><td>목적현금</td><td>100,000</td><td>성찬현금</td><td>-</td></tr> </table>	십일조	1,913,000	작정현금	380,000	주일현금	300,000	기타현금	200,000	주일학교/다윗부헌금	17,000	선교현금	20,000	감사현금	190,000	건축현금	20,000	목적현금	100,000	성찬현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경회 은혜 감사합니다. • 사경회 말씀 감사합니다. • 사경회 은혜 감사합니다. • 아빠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 길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 말씀 사경회 감사합니다. • 사경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경회 감사합니다.
십일조	1,913,000	작정현금	380,000																		
주일현금	300,000	기타현금	200,000																		
주일학교/다윗부헌금	17,000	선교현금	20,000																		
감사현금	190,000	건축현금	20,000																		
목적현금	100,000	성찬현금	-																		

목장별 VIP 명단

목장	VIP 명단
프리토리아	유현철 김현아 김지혜 문기식 송가희
베를린	김수진 이혜림 이혜주
키르기스	박주혁 한준호 박수진 김완영 최재광 강성은 김성호 황정준
퍼스	이승주 정보민 김성원 김장운 신은영 최민영
땅 끝까지	안태홍 박상현 김현석 조희태 배민경 문미선 이OO
나짱	이진아 이세라 민지은 김소혜 진서울
발리	우경민 전지훈 장안기(홍콩) 하이(베트남) 심현섭

교회소식

<1만시간 기도운동 누적시간: 359시간 52분>

1. 주일학교 연합 소풍
 - 일시 : 5월 10일(주일) 11시
 - 장소 : 상희공원(교회에 모여서 함께 출발)
 - 내용 : 예배, 게임, 점심식사
 - 권장 : vip 친구들을 초대하세요.
2. 다음 주일 점심식사 후 유아실에서 총목자 모임 있습니다.
3. 가천대 행아웃 14일(목)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다윗부 행아웃 16, 23일(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칼럼

가천대 행아웃 어게인어게인 - 발리 목장 서은비 목녀

제작년 겨울이었던가요, 멜번 호산나교회 전도팀에서 24년 12월 3일~9일 약 일주일 간 길거리 전도를 이끌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막 저희는 올땅을 오픈했던 때였고, 이제 막 다윗부행아웃, 유퀴즈라는 문화를 접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와 가장 가까운 대학, 가천대 행아웃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가천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저는 당연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참여하자! 였습니다. 춥고 추운 겨울 저녁에 계속된 거절 속에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던 저에게, Chinese?! 하며 반갑게 다가오는 세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Hi 대신 你好가 나오는 저는, 한국말을 못할 아들자 바로 중국어를 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세 친구들은 저에게 반응했습니다. 중어중문과 출신으로서 참 뿌듯했고, 그래도 오늘 한 건은 했다, 라는 기쁨이 강했습니다. 세 친구 중 한명만 들어오고, 남은 두 친구는 망설이다가 한 친구가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자 그제야 올라왔는데, 뒤에 올라왔던 친구 중 하나가 지금의 해청입니다. 그만큼 해청이도 처음에 저희에 대해 경계심이 있었지요, ㅎㅎ

처음에 흔쾌히 올라왔던 친구는 송실대학교로 갔고, 다른 친구는 잘 나오지 않게 되고, 해청이 혼자 잘 적응하려나 싶었는데, 해청이를 통해 25년도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홍콩 등)을 만나게 하시고 해청이의 가족들도 두번이나 한국에서 만날 수 있었으며, 해청이는 세례도 받고, 어느새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만해도 한국에서 비자도, 대학도, 거주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해청이는 이제 한국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외국인 유학생이 되었으며 대학생 MT도 다녀오며 찐 한국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도 가천대학교에서의 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이어지며 은혜로 가천대에서 죽 일하게 되니, 가천대와의 인연은 제게 말도 못하게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두달 전쯤, 목사님께서 설교시간에 가천대 행아웃에 대해 언급해주시니... 문득 할 숙제를 잊고 있었던 학생처럼 뜨끔했습니다. "아 맞다...." 가천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보답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강했고, 선한 부담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마음에만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청이가 홍콩에서 한달 쉬고 돌아오더니,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청이가 홍콩에 돌아가서 1-2월 지낸다고 할 때, 3월에는 우리 교회 안오는거 아닐까 뜸해지는 거 아닐까, 한국친구들 생기면 교회 안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즘 보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우리교회에 마음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들도 전도하고 싶어하고요.

가천대 행아웃 어게인어게인 - 발리 목장 서은비 목녀

사실 외국인 친구들을 바로 목장으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행아웃이 떠올랐습니다.

또 마침, 정말 귀한 우리의 인재... 지인자매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딱딱딱한 길거리 전도 현장의 경험을 한아름 안고 온 지인이의 간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천대행아웃에 지인이까지 연결짓지는 못했고, 가천대 행아웃에 대해 부담감이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해청이가 지인이를 정말 좋아해서, 둘과 함께 가천대에서 점심 먹기로 약속한 날 아침, 문득 아! 지인이가 있었지, 맞아맞아, 지인이가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청이 친구들을 다 커버하고, 길거리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이 부담스럽고, 최근 저도 중국어 실력이 참 안좋아지기도 했고,,,, 마지막 가천대행아웃 기억이 좋지않아서(영어, 중국어 모두 망했었습니다 ㅋㅋ)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천대 행아웃은 참고로 정말 거의 외국인 대상입니다. 한국인은 절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외국인들만 한국음식을 먹으러 거의 오는 수준입니다! ㅎㅎ

하지만, 그 날 해청이와 영어와 중국어를 혼용하며 대화하는 지인이를 보고, 아 우리 셋이어도 되겠다! 우리 셋이 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겠지(?) ㅎㅎ ㅎㅎ 하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점심 이후 바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가천대 행아웃 팀장(?)을 자처하며 일을 벌려보려고 합니다. ㅎㅎ 기도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일이 잘 만들어 지겠지요!

해청이의 조언으로 목요일 이른 오후쯤으로 잡았습니다. 금요일은 외국친구들이 다 바쁘다더라고요! 이번 가천대 행아웃의 1차 목표는 해청이의 홍콩선배(장안기)를 데려오는 것이고, 2차 목표는 해청이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친구들(목장으로 1번씩은 왔었습니다)을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만해도 가천대 행아웃은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은혜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요즘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쁘시고, 여력을 내시기 어렵겠지만, 각자 부담주시는 대로 역량에 맞게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 프리토리아 목장 신유나 어린이 예비목자

안녕하세요? 프리토리아 목장 목원이자 예비목자인 신유나 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이 새로운 삶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주말을 뺏긴다는 것에 새로운 삶이 싫고 짜증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배우면 배울수록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학이나 국어같은 과목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에 필요한 과목도 배우고 이해하면 기분이 좋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배우니까 기분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라는 변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암기해야 할 말씀도 바뀌었습니다.

첫 변화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도 많아지고 더 화목한 분위기가 되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번 삶에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어린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버지의 단계, 그리고 VIP'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초보의 단계인 어린이의 단계, 자라나서 죄와 싸우고 있는 청년의 단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아버지의 단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전도해야 할 VIP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번 삶이 순조롭게 잘 지나가서 간증을 별로 할 것은 없지만, 이 일을 감사하게 여겨야겠네요.

이상으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 땅 끝까지 목장 김서아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땅끝까지 목장 김서아입니다.

이번 새로운 삶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체성과 가치관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칠 때는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는데, 잘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로운 삶에서 도겸이, 시우, 지안이, 유나 언니, 수겸이 오빠, 태인이 오빠, 지용이 오빠, 서울이 오빠와 함께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님과 많이 이야기하면 성령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 나짱 목장 박도겸 어린이

안녕하세요. 나짱목장 박도겸입니다.

제가 새로운 삶 공부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공부를 하면서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VIP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삶 공부를 끝까지 출석하고 시험에도 통과하여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 땅 끝까지 목장 유지안 어린이

안녕하세요. 땅끝까지 목장 유지안입니다.

생명의 삶 수업을 들었을 때는 간증하는게 싫어서 간증하는 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엄마가 간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마치고 암송과 큐티를 열심히 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매 수업시간에 가르쳐주신 사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매주 밥을 준비해주신 이모들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데려다주신 아빠에게도 완두콩만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우가 토요일마다 누나 공부는 언제 끝나냐고 물어봐서 싫었지만 기다려줘서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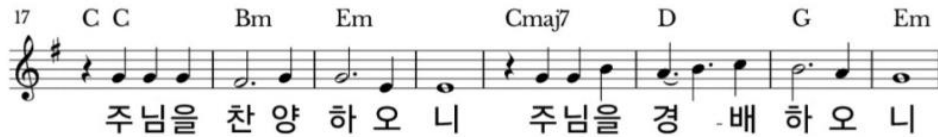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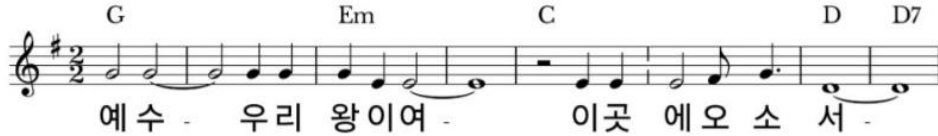
마지막 날 시험을 못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달래준 유나 언니와 서아가 고마웠어요.

큐티를 도와준 혜정이 이모와 애희 이모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Words & Music by
전승연
랑이파파 채보



사도신경

인도자 : I.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도자 : II.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인도자 : III.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회 중 :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일 415)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

은혜와 사랑
F. R. Havergal, 1873
조금 빠르게

I could not do without Thee
이는 만민에게 생명의 요람과 안목을 친히 주시는 어심이라 (행 17:25)

ENDSLEIGH: 7&7&D.
S. Ferret(1817-1874)

1.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2.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3.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4. 주 없 이 살 수 없 네 죄 나 인 의 구 주 여

그 힘 내 이 귀 없 영 조 은 한 고 의 은 보 부 깊 고 배 죽 은 독 피 하 간 속 로 며 구 에 내 구 해 음 생 속 하 없 소 끝 소 도 원 나 서 다 을 도

구 내 주 사 주 주 박 나 의 는 에 운 사 나 나 풍 의 의 의 랑 으 생 마 일 로 명 음 때 홀 또 뉘 날 리 나 알 아 지 췌 보 힘 주 주 시 혈 이 리 시 니

내 주 내 내 소 님 마 절 망 을 위 계 나 의 지 로 신 위 하 하 주 로 여 사 님 을 영 혜 온 힘 광 율 케 이 됩 언 하 됩 니 다 아 멘

축복의 사람

작사/곡 설경옥

♩ = 70

주 계 힘 을 얻 고 그 마 음 에 - 시 온 의 대 로 가 있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기 뻔 하 시 죠 - 주 의

집 에 거 하 기 를 사 모 하 - 고 주 를 항 상 찬 송 하 는 그 대 는 -

하 나 님 의 축 복 의 사 람 이 죠 주 님 그 대 를 너 무 사 랑 하 시 죠 - 그 대

설 길 은 아 름 다 운 찬 송 그 대 헌 신 은 항 기 로 운 기 도 그 대

가 밍 는 땅 어 디 에 서 라 도 - 주 님 의 이 름 높 아 질 거 예 요